

# KERI Brief

##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이태규

미래성장동력실 연구위원  
(tklee@keri.org)

### 1. 논의의 배경

-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산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금융조달
-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적절한 금융조달 없이는 프로젝트의 수주 및 완수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
- 해외건설 금융은 해외건설·플랜트의 발주 형태에 따라 필요한 금융조달 구조가 달라지는데 발주 형태는 통상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음.

- 도급형: 발주자가 금융 등 전반을 담당하고 건설·플랜트사는 단순시공 또는 설계·조달·시공(EPC) 등을 담당
- 시공사금융제공형: 도급사업의 일종이나, 시공자가 사업비를 조달
- 투자개발형<sup>1)</sup>: 시공기업이 사업개발, 지분투자, 제품구매, 설비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형태

1) 일반적으로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시 활용되는 민간투자 사업이 이러한 투자개발형 사업에 포함되며 사업형태로는 BOT(build-operate-transfer), BOOT (build-own-operate-transfer), BOO(build-own-operate), BLT (build-lease-transfer)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 이상의 발주 형태를 바탕으로 해외건설 금융은 크게 도급사업에 필요한 금융, 그리고 투자개발에 필요한 금융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음.

- 도급사업 금융: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sup>2)</sup>, 공사 수행 시 필요한 운영자금
- 투자개발형 금융: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비용 등 매몰성 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수행 시 위험회피(환위험 등)를 위한 보험 등

□ 특히 최근 해외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 중의 하나는 시공사 금융제공 및 투자개발형 등의 금융팩키지형 프로젝트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sup>3)</sup>

- 저유가로 중동 주요국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을 직접 투입하기보다는 시공사 금융제공 또는 투자개발 형태로 인프라 건설을 추진
- 또한 사회기반시설이 대규모화, 복합화 되면서 전통적인 도급계약방식이 아닌 민간기업들이 단순히 건설뿐만 아니라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금융조달 등 사업 전 영역에 참여하는 통합발주 방식을 선호
-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대다수는 도급사업 형태로 진행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비해 단순도급형 사업은 입찰 경쟁이 치열해 높은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해외건설·플랜트에 있어 금융조달(자본참여 포함) 능력이 사업수주 경쟁력의 핵심 중의 한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자 하는 기업은 효과적인 금융조달 방안에 대한 준비 필요

- 통상 프로젝트 비용의 70% 이상의 금융조달이 필요하므로 금융조달 능력이 수주 성공 여부의 관건

□ 하지만 최근 국내 기업들의 해외건설 수주형태를 보면 도급형이 차지하고 있는 절대적 비중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

- 도급형의 비중은 2013년 96.8%, 2014년 97.4%, 2015년 97%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

□ 또한 도급형태 중에서 금융조달 능력이 필요한 시공사금융제공형 비중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sup>4)</sup>

- 시공사금융제공형의 비중은 2013년 16.7%, 2014년 10.5%, 2015년에는 7.1%로 감소 추세

□ 이 같은 현상은 국내 기업들의 금융조달 경쟁력 열세와 관련이 깊으며 이는 국내 금융시스템의 해외수주 지원능력 부족과 무관하지 않음.

□ 국내 시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건설업계로서는 해외 수주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하며 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외 건설·플랜트 관련 금융서비스의 양적, 질적 측면 모두 획기적 개선이 필요

2) 해외공사 보증의 종류로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하자이행보증 등이 있음.  
 3)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의 비중은 2010년 기준 24.8% 수준(세계은행)관계부처 합동, 2013)  
 4) 이데일리 기사(2016.3.2) 참조

〈표 1〉 해외건설 발주형태별 수주액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도급형	투자개발형	합계
2013년	금액	63,101	2,111	65,212
	비중	96.8	3.2	100
2014년	금액	64,284	1,726	66,010
	비중	97.4	2.6	100
2015년	금액	44,753	1,391	46,144
	비중	97	3	100

자료: 해외건설협회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해외 수주 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적영역에서의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 해외건설·플랜트는 통상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므로 공적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 민간 은행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해외 수주 시장에 대한 노하우 축적이 여의치 않고 만기 미스매치(mismatch)의 위험성이 높아 민간 은행의 역할 제고는 장기적 과제

## 2. 해외 건설시장 및 국내 해외수주 현황 및 추이

### (1) 해외 건설시장 현황

□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 달러로 추정되며 2018년까지 연 평균 4%로 성장하여 2018년에는 1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sup>5)</sup>

- 세계 건설시장 중 세계 인프라시장은 2018년 3.7조 달러에 달하여 연평균 4.5%씩 성장할 전망이며 세계 플랜트시장은 2018년까지 연평균 4% 성장하여 1.3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지역별로는 2013년 기준 전체 세계 건설시장에서 아시아가 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유럽이 21%로 그 다음 순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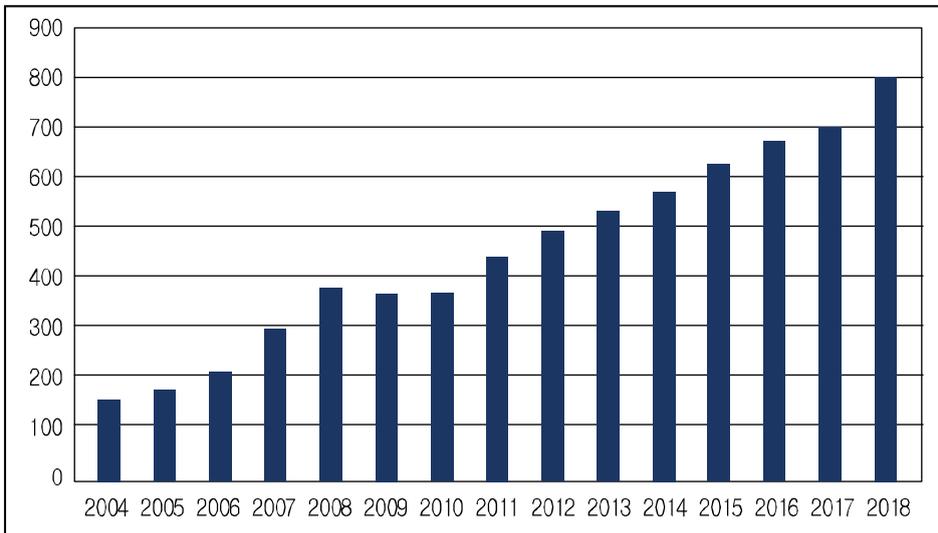
- 특히 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건설시장 규모의 성장세도 타 지역을 상회

- 2018년까지 아시아 지역 건설수요는 연 5%씩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중국은 2018년까지 연 7%의 성장세를 기록하여 세계 최대의 건설시장으로 부상

5)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한국수출입은행, 20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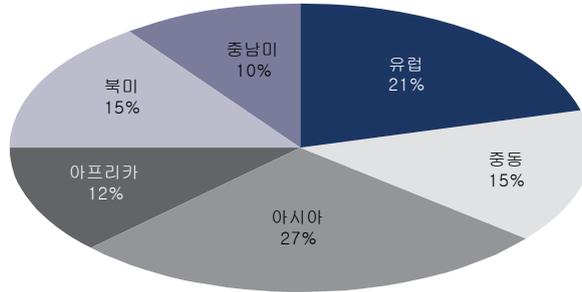
〈그림 1〉 해외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ENR,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한국수출입은행, 2015.5)

〈그림 2〉 2013년 지역별 해외 건설시장 비중 현황



자료: ENR,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한국수출입은행, 2015.5)

〈표 2〉 2013년 국가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단위: 십억 달러)

구분	매출	비중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캐나다	중남미
스페인	79.8	14.7	4.3	20.3	28.4	17.5	15.9	0.3	16.3
중 국	79	14.5	13.7	25.4	30.3	2.5	0.8	0.3	5.9
미 국	70.9	13	7.6	22.9	1	7	NA	23.3	9
프랑스	50.7	9.3	1.9	7.3	5.9	25.2	4.3	3	3
독 일	46.5	8.6	1.6	23.1	0.4	7.6	11.8	1.4	0.4
한 국	42.4	7.8	21.6	14.5	3	0.3	0.2	0.5	2.1
이탈리아	28.9	5.3	7.4	3.5	6.4	4.9	1	1.1	4.4
일 본	22.2	4.1	1.6	15.3	0.8	0.6	2.7	0.4	0.7
터 키	20.4	3.8	6.3	3.6	2.1	8.2	0.06	0	0.1
브라질	12.9	2.4	0.05	0	2.9	0.06	0.1	0	9.7
호 주	10.6	1.9	0.8	4.3	0.09	1	2.6	1.3	0.2
네덜란드	9.9	1.8	1.1	1.2	0.6	5.9	0.8	0	0.2
영 국	5.9	1.1	2	1.2	0.7	1.5	0.03	0.12	0.3
캐나다	1.1	0.3	0.1	0.01	0.1	0.25	0.43	NA	0.2
기 타	62	11.4	13.5	3.4	4.7	28.9	7.4	0.26	2.2
합계	543	100	84	146	62	111	48	34	56

자료: ENR,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한국수출입은행, 2015.5)

□ 2013년 기준 국가별 해외건설시장 점유율은 스페인이 14.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sup>6)</sup> 그 뒤를 중국, 미국, 프랑스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7.8%로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스페인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미국 등을 중심으로 고른 지역에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2위인 중국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주 영업 지역이

라 할 수 있으며 미국은 캐나다에서 타 국가를 압도  
- 한국은 중동 지역 의존도가 높아 중동 국가들의 재정 및 경기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음.

6) 스페인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12년 이후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라섰으며 주요 13개 건설기업들의 매출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이후 연 30%의 매출 증가율을 기록(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2015.5)

(2) 국내 기업 해외수주 현황 및 추이

□ 해외 건설시장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국내 기업의 해외수주는 최근 들어 매우 부진한 상황

- 2010년 약 716억 달러 수주로 정점을 찍은 다음,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15년에는 461억 달러로 전년(660억 달러) 대비 30.1% 급락

□ 특히 우리나라 해외 건설의 가장 큰 시장인 중동에서의 수주가 크게 하락하여 전체 수주액 하락을 견인

- 우리나라 해외 전체 수주액에서 중동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66%에서 2015년에는 35.8%까지 하락  
 - 반면 아시아 시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2010년 20.2%였던 아시아 시장 수주액이 2015년에는 전체 수주액의 42.7%까지 상승  
 - 하지만 중동시장에서의 감소분이 아시아시장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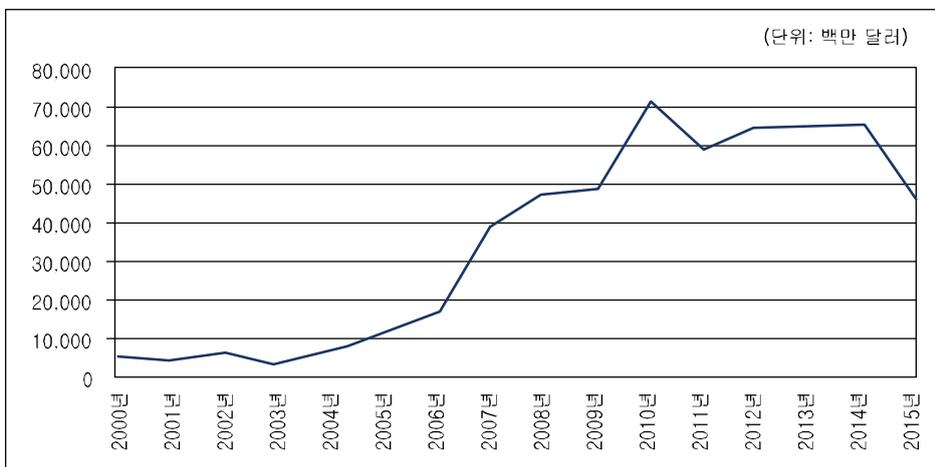
의 증가분에 비해 월등히 크므로 전체 수주액은 크게 감소

□ 여기에 더하여 유로화,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한 유럽과 일본 기업들의 공격적 해외진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해 막대한 개발자원을 제공하고 있는 중국 등의 요인이 겹쳐 해외 건설시장의 경쟁이 격화된 것도 한 요인

□ 중동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 하락은 저유가로 인한 중동 국가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직결되며 특히 재정적자가 심화에 따라 재정투입을 통한 건설프로젝트가 크게 줄었기 때문

- GDP대비 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특히 쿠웨이트(2014년 26.3%→2015년 1.3%), 사우디아라비아(-3.4%→-21.6%), 이라크(-5.3%→-23.1%), UAE(5.0%→-5.5%) 등의 하락폭이 큰 편이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베네수엘라는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20%를 상회

〈그림 3〉 해외 수주액 추이



자료: 해외건설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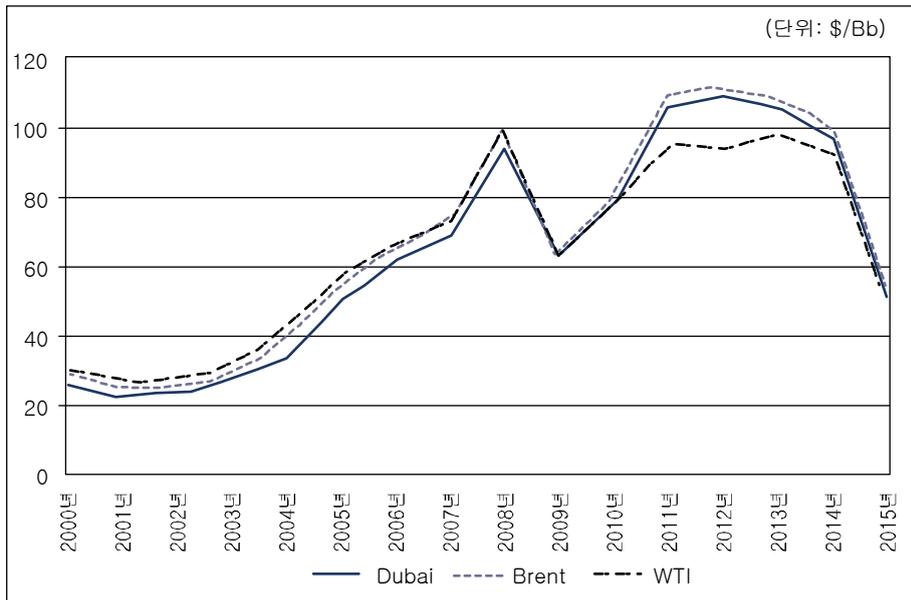
〈표 3〉 최근 해외 지역별 수주액 비중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총계	중동	아시아	태평양·북미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2010년	71,578,807	47,249,910 (66%)	14,463,861 (20.2%)	4,952,771 (7%)	398,085 (0.6%)	2,447,221 (3.4%)	2,066,959 (2.9%)
2011년	59,144,314	29,540,749 (49.9%)	19,363,079 (32.7%)	1,012,507 (1.7%)	376,720 (0.6%)	2,207,975 (3.7%)	6,643,284 (11.2%)
2012년	64,880,678	36,872,421 (56.8%)	19,431,361 (29.9%)	233,600 (0.4%)	533,516 (0.8%)	1,615,089 (2.5%)	6,194,691 (9.5%)
2013년	65,211,657	26,142,941 (40.1%)	275,682,494 (42.3%)	6,359,478 (9.8%)	730,895 (1.1%)	1,082,914 (1.7%)	3,327,180 (5.1%)
2014년	66,009,930	31,350,717 (47.5%)	15,915,524 (24.1%)	3,043,140 (4.6%)	6,755,178 (10.2%)	2,195,580 (3.3%)	6,749,791 (10.2%)
2015년	46,144,348	16,530,256 (35.8%)	19,720,002 (42.7%)	3,647,884 (7.9%)	964,495 (2.1%)	749,744 (1.6%)	4,531,967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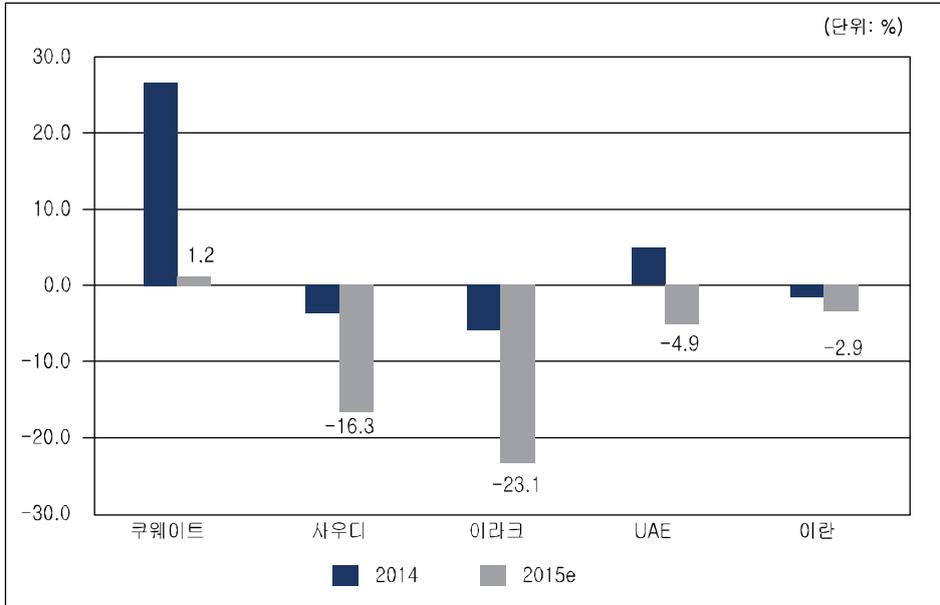
자료: 해외건설협회

〈그림 4〉 국제 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petronet)

〈그림 5〉 주요 중동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수지



자료: IMF

□ 2016년 들어서는 수주 실적이 더욱 악화되는데 2016년 1.1~8.15까지 수주실적은 약 170.6억 달러인데 이는 2015년 동 기간의 55%에 불과하며 2014년 동 기간에 비하면 41%에 불과

- 2016년 1.1~8.15 기간 중 중동 지역의 수주는 2015년 동 기간의 52%, 아시아 지역의 경우 2015년 동 기간의 54%에 그쳤음.

□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해외건설을 고려할 때 2016년의 해외건설 수주실적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중동 지역의 공사발주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원유가는 2016년에도 반등의 여지가 많지 않음.

- 산유국 간 시장점유율 경쟁 지속, 이란의 원유수출 재개, 중국 등 신흥국의 수요 부진 등으로 원유의 초과공급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저유가 기조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

〈표 4〉 과거 동기 대비 최근 수주 실적

(단위: 건, 백만 달러)

지역	2014.1.1~8.15		2015.1.1~8.15		2016.1.1~8.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32 (100.0)	41,453 (100.0)	381 (100.0)	30,993 (100.0)	360 (100.0)	17,060 (100.0)
중동	69 (16.0)	25,945 (62.6)	39 (10.2)	10,183 (32.9)	36 (10.0)	5,319 (31.2)
아시아	263 (60.8)	8,081 (19.5)	230 (60.4)	14,871 (48.0)	241 (66.9)	7,996 (46.8)
태평양·북미	18 (4.1)	157 (0.4)	13 (3.4)	1,133 (3.7)	13 (3.6)	1,361 (8.0)
유럽	26 (6.1)	1,162 (2.8)	25 (6.6)	71 (0.2)	16 (4.5)	352 (2.1)
아프리카	36 (8.3)	542 (1.3)	37 (9.7)	622 (2.0)	33 (9.2)	580 (3.4)
중남미	20 (4.7)	5,563 (13.4)	37 (9.7)	4,111 (13.2)	21 (5.8)	1,451 (8.5)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해외건설협회

〈표 5〉 국제유가(Brent유 기준) 전망

	2015	2016 <sup>a)</sup>			2017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OEF [12.16]	52.7	45.7	48.5	47.1	52.7
CERA [12.10]	53.0	47.4	61.4	54.4	65.4
EIA [12.8]	52.9	53.3	58.2	55.8	-
선물 <sup>2)</sup> [12.31]	-	40.2	44.3	44.3	49.7

주: 1. [ ]내는 전망일자  
 2. 해당기간의 말월물 기준  
 자료: 한국은행(2016)

### 3. 해외수주 관련 자금조달의 문제점

#### (1) 해외건설 금융지원 규모

□ 해외 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금융은 해외공사에 대한 보증, 공사 운영자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이며 이들 수요를 국내 금융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충분히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 향후 해외건설 시장의 추세는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투자개발형이 확산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해외건설 금융은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전체 해외수주액에서 투자개발형 수주는 최근 약 3%에 불과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개발형 공사의 수익률은 단순도급공사의 2~3배 수준

-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발사업 수주비중이 65~75%를 차지<sup>7)</sup>

□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의 복잡성, 큰 규모, 그리고 위험성으로 인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나 국내 민간 금융기관은 이 같은 기준에 아직 미흡

- 특히 투자개발형 사업의 경우 수익이 장기에 걸쳐 발생하므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 외화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즉 막대한 규모의 자본과 긴 기간이 소요되는 투자개발형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축적

된 노하우와 리스크 관리능력이 필요

- 따라서 각 국의 대형은행과 ECA(Export Credit Agency)을 포함한 정책금융기관들 중심으로 관련 금융서비스를 제공

□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투자개발형 공사에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수출입은행 등의 ECA를 통해 진행되는데 그 규모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

□ 투자개발형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정책금융기관들의 전체 금융지원 규모도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으로 건설업계는 평가

- 해외 건설·플랜트 관련 금융서비스의 전체 수요자 금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추정이 어려우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sup>8)</sup> 이란의 올해 발주 추정액은 500억 달러인데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액은 70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

□ 부족한 규모의 해외건설 금융도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경향이 심하므로 해외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신용도가 높지 않은 중소·중견 건설업체는 해외 건설·플랜트 산업 진출에 상당한 애로 호소

-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보다는 중소·중견 건설업체 자체 신용 및 재무 상태 위주의 엄격한 심사로 인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

7) 해외건설 현황 및 정책방향, 국토교통부, 2014

8) 이데일리, 2016년 3월2일자, "해외건설 금융조달 비상"

□ 해외의 경우 ECA를 통한 금융지원이 활발한데 가령 일본의 경우 ECA를 통한 건설부문 금융지원은 2014년 기준 24,036백만 달러이며 한국은 일본의 약 54.3%인 13,045백만 달러에 그침.

□ 특히 해외건설의 경우 ODA를 통한 금융지원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미국과 일본의 경우 건설부문 ODA는 한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규모

- 2014년 기준으로 미국의 건설부문 net ODA는 14,701백만 달러, 일본은 11,434백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반면 한국은 1,703백만 달러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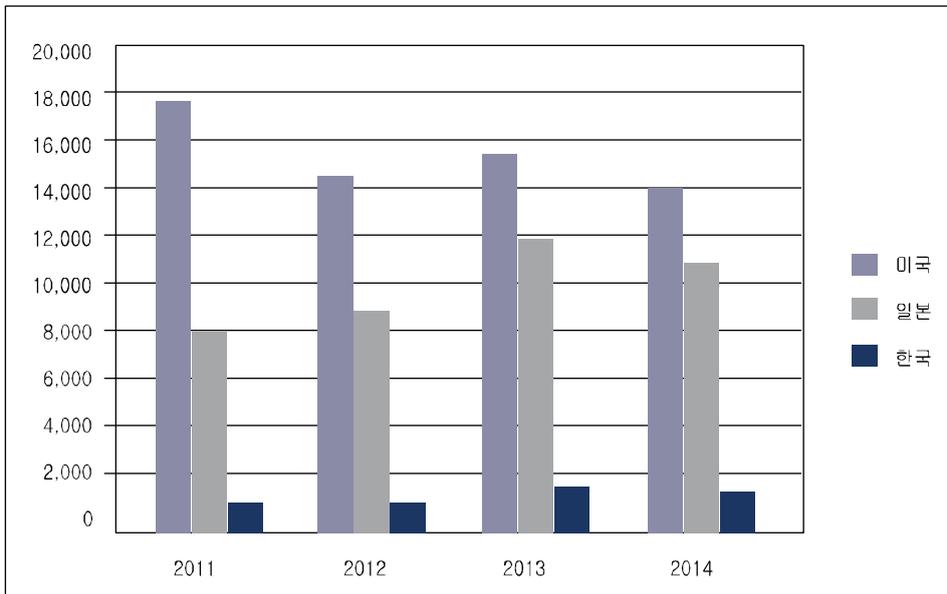
- 건설부문 ODA 규모와 비례하여 미, 일의 건설업체들에 비해 한국 건설업체들은 금융조달 면에서는 불리한 상황

- 정확한 규모는 알려진 바 없으나 최근 중국은 막대한 ODA 자금을 활용하여 건설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국을 해외건설 수주 최상위권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 해외수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도급공사의 경우 이행성 보증이 중요한 금융지원 수단

〈그림 6〉 한·미·일 건설부문 net ODA

(단위: 백만 달러)



자료: OECD

〈표 6〉 해외건설 수주액 대비 이행성 보증 발급 비율

(단위: 억 달러)

기간	해외수주액	필요보증액	발급실적	발급비중
2009~2011	1,798	540	296	55%
2012~2013.6(1.5년)	957	287	124	43%

자료: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2014)

□한 조사에 따르면<sup>9)</sup>, 2009~2011년 간 국내 건설사들의 총 필요 이행성보증금액의 55%만 국내 은행을 통해 조달된 것으로 추정됨.

□그 이후 2012~2013. 6월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는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수주액 대비 필요보증액의 금액의 43%만 조달된 것으로 나타나 보증 실적은 오히려 하락

□국내 은행들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증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한 이유로는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전문성 부족, 리스크 회피 성향 등을 들 수 있음.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는 발주처에서 보증 금융기관으로 현지 상업은행이나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대형 금융기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한 요인

- 국내 은행들은 '국제적 인지도를 가진 대형 금융기관'이라는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규모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건설 프로젝트 수주 및 수행에 필요한 보증을 자체 신용으로 현지 은행이나 다국적 은행에서 발급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도 충분히 공급받고 있지 못함.

-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보증도 보증수수료율이 해외 주요 금융기관보다 높아 기업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보증서비스를 사용하는 셈

□2012.1월~2013.6월 기간 동안 국내 보증기관을 통한 해외건설 보증 실적을 보면 전체 보증액 중 중소기업 보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은행의 경우 5.9%, 부보기관의 경우 15%에 불과

-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국내 은행보다는 부보 기관을 통한 보증에 더 많이 의존

-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이행성 보증과 관련된 설문<sup>10)</sup>에서 시급한 금융지원 개선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83.6%가 '보증한도의 충분한 제공'을 요구(이행성보증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포기 등 불이익을 경험한 회사가 전체 응답사의 53.1%)

9) 『해외건설 전담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삼정케이피앤지컨설팅, 해외건설협회, 2012)

10)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 2014)

〈표 7〉 기업 규모별 국내 보증기관의 해외건설 보증 실적 추이

(단위: 천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중견 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내 은행	A은행	8,050,399	96.2%	314,380	3.8%
	B은행	1,614,709	97.1%	49,001	2.9%
	C은행	791,756	84.2%	148,625	15.8%
	D은행	439,302	90.8%	44,727	9.2%
	E은행	311,880	93.7%	20,919	6.3%
	F은행	208,496	70.7%	86,409	29.3%
	G은행	87,437	100.0%	-	-
	H은행	78,420	97.2%	2,232	2.8%
	I은행	73,728	92.6%	5,927	7.4%
	J은행	459	0.8%	57,099	99.2%
	K은행	12,512	87.0%	1,872	13.0%
	합계	11,669,098	94.1%	731,191	5.9%
부보 기관	S기관	4,637,559	87.3%	674,085	12.7%
	T기관	786,702	87.6%	111,464	12.4%
	U기관	-	-	180,696	100.0%
	V기관	157,921	87.7%	22,184	12.3%
	합계	5,582,182	85.0%	988,429	15.0%

자료: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2014)

□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3,000억 원 규모의 공동보증 제도 도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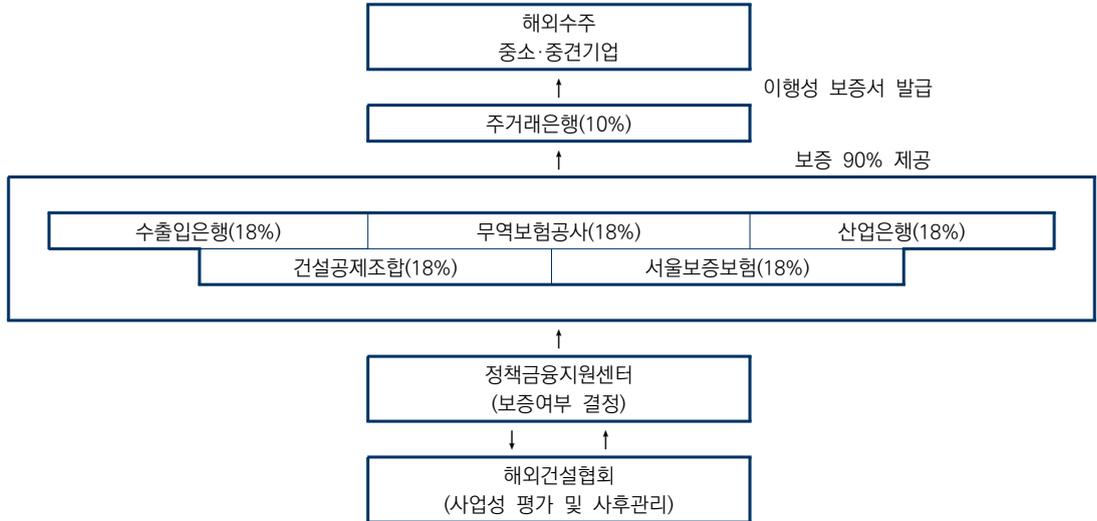
- 수은, 무보, 산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5개 기관이 참여하여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재무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 확대
- 해외건설협회의 사업성 평가가 양호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
- 참여기관이 동일한 비율로 전체 보증액의 90%를 부담하고 주거래은행이 나머지 10%를 부담하여 주거래은행이 대표로 보증서 발급

□ 공동보증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부족 완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

- 2015년 중소기업의 해외수주액은 39.15억 달러이며 이에 대한 필요 보증 금액은 약 11.7억 달러로 추정<sup>11)</sup>할 수 있으며 공동보증제도를 통한 3,000억 원은 필요보증액의 23.3%에 해당

11) 전체 수주액의 30%를 필요보증액으로 간주

〈그림 7〉 공동보증제도 구조도



자료: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2015.7) '공동보증제도 개요'

〈표 8〉 주요국 ECA 조달금리와 자본규모

	한국	일본	캐나다
ECA 조달금리 (2013년 6월 기준)	Libor + 99bp	Libor + 3bp	Libor -4
ECA 자본규모 (2011년 기준)	65억 불	264억 불	81억 불

자료: 대외경제장관회의 자료, 2013. 8. 28

(2) 높은 조달금리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저리의 자금을 정책금융기관들에 제공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관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므로 조달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를 내포

#### 4.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방안

##### (1) 정책금융형 해외인프라 펀드 추가 설정

□ 국내 건설업계가 이미 포화상태인 국내 시장에서 탈피하여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

- 글로벌 경기침체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도급형보다는 투자개발형 사업 참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 PPP 형태의 투자개발형 사업이 확대되는 세계인프라시장은 10년간 약 2.6배 상승('03년 437억 불 → '12년 1,126억불, World Bank)
- 2050년까지 아시아 인프라 시장 규모는 약 9,000조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ADB)<sup>12)</sup>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

□ 단기적으로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금융기관의 역량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정책금융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

□ 이와 연관된 주목할 만한 정책대응으로 글로벌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 GIF)와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rea Overseas Infra Fund: KOIF)의 설립을 들 수 있음.

□ GIF는 해외 건설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개발형 인프라 건설(사업주 금융조달 사업)을 지원하는 펀드로서 공공기관 및 연기금(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건설공제조합 등)과 민간투자자가 공동으로 2009년 설립

- 현재 3,500억 원 규모(약 3.9억 달러)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라인드(Blind)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

\*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 투자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들 간 투자 금액을 약정하고 투자대상 발굴시 투자하는 방식

- 지금까지 투자실적은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 사업 등 4건 사업에 약 1,600억 원 투자

12) 『아시아 인프라 전쟁』, 매일경제신문사, 2015.5

〈표 9〉 GIF 투자 실적

사 업 명	파키스탄 수력발전	포르투갈 태양광 발전	요르단 타필라 풍력발전	터키 키리칼레 가스복합발전
투자대상	전환사채(CB)	Equity, 대출	Equity, 대출	후순위 대출
투자약정일	2011.7.29	2012.5.15	2015.12	2015.7
투자액	대출채권 : 391억 원	지분 : 667,000 유로 대출채권 : 23,852,684유로 (373억 원)	지분, 대출 : 400억 원	대출채권 : 450억 원
예상수익율	15.17%	8.41%	10%	12%

자료: 국토교통부

□ KOIF는 한국투자공사(KIC)의 출자로 2015년 조성한 해외 인프라펀드이며 20억 달러 한도로 국토부가 제공하는 인프라사업에 대해 투자함.

- KOIF는 미화(美貨)로 구성되어 환 변동성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 보유
- 사업성이 검증된 소규모 인프라사업(1~2억 불 규모)에 투자하고, 중장기적으로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운영전략을 수립

□ GIF와 KOIF를 합치면 정책금융 형태의 투자개발형 인프라펀드는 약 23.9억 달러 규모이나 이는 향후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부족한 규모

□ 전체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의 비중의 중기목표를 10%로 잡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비중을 달성

- 향후 5년 내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의 비중 10% 달성

□ 2016년 해외건설 수주액 목표를 다소 낙관적으로 잡아 5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향후 5년 후 연평균 4% 성장을 가정하면<sup>13)</sup> 해외건설 수주액은 600억 달러이고 이 중 투자개발형 비중 10%는 60억 달러에 해당

□ 이 같은 목표 하에 민간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참여, 기존 ECA의 자원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23.9억 달러 규모의 해외 인프라 펀드는 부족

□ 따라서 해외수주 중 투자개발형 비중 목표 1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펀드의 추가 설정이 필요하며 추가로 약 36억 달러를 조성하여 총 60억 달러 규모로 정책금융형 해외인프라 펀드 확대 추진 필요

□ 공적 연기금의 낮은 대체투자 비중을 고려하면 해외

인프라 펀드의 추가 설정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상황

□ 연기금의 성격상 장기 자산운용이 필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전통 자산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체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

- 공적기금의 경우 민간 은행과는 달리 자금의 장기 운용으로 인한 조달과 운용 간의 만기 미스매치의 위험성이 매우 낮으므로 장기투자에 적합

- 특히 한국투자공사와 국민연금 모두 대체투자 비중이 주요국 국부펀드와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

○ 2015년 말 기준 한국투자공사의 대체투자 비중은 12.4%이며 국민연금은 10.7%임.

○ 반면 2014년 기준으로 해외 국부펀드의 경우 CIC(중국)는 37.7%, GIC(싱가포르)는 16%이며 해외 연기금의 경우 CPPIB(캐나다)는 36.5%, CalPERS(미국)는 20.9%

□ 특히 국민연금, KIC 모두 대체자산의 수익률이 전통 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

- 2015년 국민연금의 해외대체자산 수익률은 14.9% (국내 대체자산은 8.98%)인 반면 전통자산 수익률은 국내주식 1.67%, 국내채권 4.29%, 해외주식 5.73%, 해외채권 1.52% 등을 기록

- KIC의 경우 2015년 전체 대체자산 수익률은 6.78%인 반면 전통자산 수익률은 -3.15%를 기록

□ GIF와 KOIF 전체 규모를 6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36억 달러는 KIC와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확대라는 측면에서 무리한 수준은 되지 않을 전망

13) 세계 건설시장의 향후 수년 간 성장을 전망 연평균 4%와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한다고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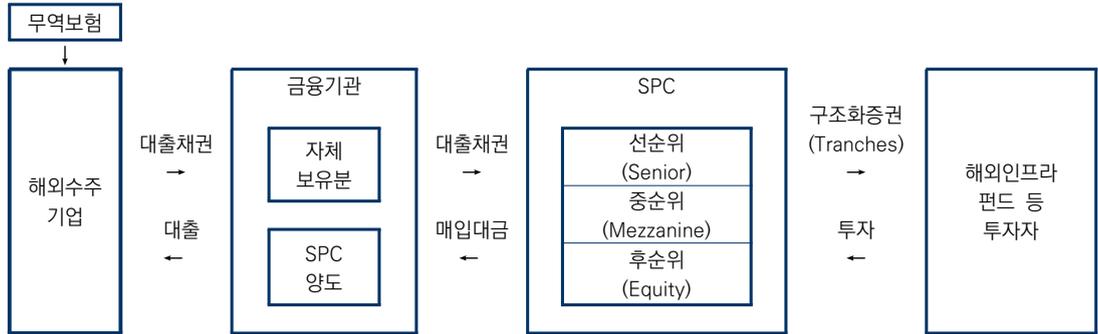
- 기금의 성격상 의무지출 부담이 없는 KIC가 자산 대비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여 재원을 분담할 필요
  - 예를 들어, 36억 달러 중 KIC와 국민연금이 각각 18억 달러로 동일하게 부담한다면 KIC는 대체투자 비중을 2%p 추가로 확대하는 셈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0.4%p에 확대하는데 불과
  - 수은, 산은 등 다른 정책금융기관의 출자도 가능하지만 정부재정, 산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로 참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GIF의 블라인드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정 이상의 수익성을 전제로 한 투자대상에만 투자

**(2) 민간의 해외건설 금융지원 유도**

-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의 특징인 대규모, 장기, 환위험, 높은 위험성으로 인해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미미한 점을 개선할 필요**
  - 한편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대규모 장기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 자금의 조달·운용간 불일치 문제 발생
    - 국내 민간 금융기관은 10년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 대출도 대부분 단기 차입(3년) 위주로 외화 조달
  - 또한 풍부한 원화 유동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위험으로 인해 이의 적극적 활용을 꺼리는 경향이 농후
- **최근 해외 건설시장에서 확대되는 시공자금융 도급공사의 경우 업체의 차입(debt financing) 수요를 민간 금융기관이 충족할 수 있어야 수주활성화가 가능**

- 전술한 바대로 최근 시공자금융형의 수주실적이 크게 위축되었으므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금지원 역량 확보가 시급
-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시공자금융을 제공하나 궁극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해외 건설금융의 발전이 가능
- **앞서 제안한 확대되는 해외 인프라펀드의 일정 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대출채권을 구조화채권 형식으로 유동화한 다음 이를 해외 인프라펀드가 매입하는 방식을 고려**
  - 현재도 GIF가 대출채권에 투자를 하나 개별 프로젝트의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방식
  -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방식의 구조로 거래 형성
- **해외건설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채권에 대해 해외 인프라펀드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금융 활성화 제고 가능**
  -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관련 대출 리스크 부담을 덜어 주어 관련 대출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 강화
  - 관련 구조화채권의 초기 시장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
  - 해외수주 시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을 통해 내부 신용보강도 가능
  - 우선적으로 3,000~5,000억 원 규모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규모 확대

〈그림 8〉 해외건설 대출채권의 유동화 개념도



자료: 저자 작성

## 5. 요약 및 결론

- 국내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벗어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산업에 활발히 진출하고자 하는 가운데 금융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로 부상
- 최근 해외에서 발주되는 프로젝트의 가장 두드러진 경향 중의 하나는 금융팩키지형 프로젝트(시공자 금융제공 및 투자개발형 등)의 발주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
  -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추진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바, 적절한 금융조달 없이는 프로젝트의 수주 및 완수가 어려운 상황
- 반면 국내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대다수는 도급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2015년 해외수주 중 도급형 사업 비중은 약 97%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
-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시장에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적극적 진출이 필요

- 2015년 현재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은 3%에 불과하고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
- 단기적으로는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금융 기관의 역량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정책금융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필요
- 현재 조성된 GIF와 KOIF를 합치면 정책금융 형태의 투자개발형 인프라펀드는 약 23.9억 달러 규모이나 이는 향후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를 추진하는데 있어 부족한 규모
- 전체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의 비중의 중기목표를 10%로 잡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비중을 달성
  - 5년 후 전체 해외수주액이 600억 달러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이의 10%는 60억 달러
- 따라서 해외수주 중 투자개발형 비중 목표 1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펀드의 추가 설정이 필

<p>요하며 추가로 약 36억 달러를 조성하여 총 60억 달러 규모로 정책금융형 해외인프라 펀드 확대 추진 필요</p> <p>□공적 연기금의 낮은 대체투자 비중을 고려하면 해외 인프라 펀드의 추가 설정을 위한 재원은 충분한 상황이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도 전통 자산 시장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체투자의 비중을 높이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p> <p>- 특히 국민연금, KIC 모두 대체자산의 수익률이 전통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p> <p>□기금의 성격상 의무지출 부담이 없는 KIC가 자산 대비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여 재원을 분담할 필요</p> <p>- 36억 달러 중 KIC와 국민연금이 각각 18억 달러로 동일하게 부담한다면 KIC는 대체투자 비중을 2%p 추가로 확대하는 셈이고 국민연금은 대체투자를 0.4%p에 확대하는데 불과</p> <p>- GIF의 블라인드 캐피털 콜 방식으로 운영하여 일정 이상의 수익성을 전제로 한 투자대상에만 투자</p> <p>□또한 확대되는 해외 인프라펀드의 일정 부분을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방안의 추진도 고려</p> <p>- 확대되는 시공사금융형 발주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 미미한 국내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을 개선할 필요</p> <p>- 업체의 차입(debt financing) 수요를 민간 금융기관이 충족할 수 있어야 시공사금융형 사업의 수주활성화가 가능</p>	<p>□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대출채권을 구조화채권 형식으로 유동화한 다음 이를 해외 인프라펀드가 매입하는 방식을 고려(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s, CLO 방식)</p> <p>□ 해외건설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구조화채권에 대해 해외 인프라펀드가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금융 활성화 제고</p> <p>- 민간 금융기관의 해외건설 관련 대출 리스크 부담을 덜어 주어 관련 대출이 자연스럽게 확대 가능</p> <p>- 관련 구조화채권의 초기 시장형성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도</p>
--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 - 맞춤형 금융지원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13-8-28(의결안건)', 2013.8.28.

국민연금공단, 2015년 12월 말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 (잠정), 2016. 3

국토교통부, 해외건설 현황 및 정책방향, 2014

국회입법조사처, 해외건설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252호, 2014.12.31.

매일경제신문사, 『아시아 인프라 전쟁』, 2015년 5월

삼정케이피엠지컨설팅(주)-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전담 금융기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국토해양부 연구용역보고서, 2012.4.

한국수출입은행, 세계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중점연구 2015-2, 2015.5.

한국은행, 2016 경제전망, 2016. 1.

한국투자공사(KIC), 2015 연차보고서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중소·중견기업의 이행성보증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해외건설정책포커스, 2014.6.26.

이데일리, 2016년 3월2일자, "해외건설 금융조달 비상"